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72 호

2018년 1월 1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신년사 – 이동건 회장
2. 한눈에 보는 201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요 활동
3. FPC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아시아·중국 편> 발간
4.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 개최 결과 (12/20)
5.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안내

■ 본부 소식

1. [CEO 업데이트] 인권 존중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2.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쓰레기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없다! 대만 업사이클링 회사, 미니위즈(MINIWIZ)

■ SDGs 소식

1. [Goal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2. [SDGs 시장 기회] 콤팩트하고(Compact) 친환경적이며(Green), 상호연결된(Connected) 도시 개발

■ 회사 뉴스

1. 손태승 우리은행장 취임..."조직 화합이 최우선 과제"
2. ICT로 멋돼지 퇴치...평창 오지마을이 세계 첫 '5G 마을'로

■ CSR 뉴스

1. [더 나은 미래] 얼어붙은 5대 그룹 CSR, 내년 해빙기 맞는다
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임금 차별 땀 '징벌적 손해'
3. 계열분리 친족기업, 3년간 원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내야 한다
4. 평창 조직위, 지속가능성 1차보고서 발간

■ 회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8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신년사 – 이동건 회장



2018년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이동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화합(Unity)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리더들에게 격차를 줄이고, 분열을 극복하는데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방법도 역시 '화합'입니다.

세계경제의 지속 균형 발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민간부문의 '화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UNGC 회원사들은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경영활동에 내재화하고, COP와 COE를 통해 10대 원칙 이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업 및 기관이 12,859개에 이릅니다.

UNGC 한국협회 또한 지난 10년 간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경영에 내재화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네트워크 중에서도 모범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선도 네트워크입니다. 그간 세계적인 우수사례를 보여주신 한국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에 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018년이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 해, 또한 민간부문의 '화합'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이동건

2. 한눈에 보는 201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요 활동

■ UNGC 한국협회 창립 10주년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이 개최되어, UNGC 회원 기업 CEO,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약 400여 명이 참석,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본 행사는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 확산 및 의제 설정,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온

협회의 10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UNGC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 시상식 및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비영리단체 10곳이 기업 사회적 책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UNGC 가치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UNGC 가치대상' 수상 10곳을 포함한 UNGC 회원 기업 및 기관 대표 31인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과 정책에 내재화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 회장 선임

2017년 9월 7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명예 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반 명예 회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1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신 바 있습니다.

위촉패 전달식에서 반기문 명예회장은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UNGC 한국협회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큰 성과이며, 앞으로도 유엔과 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는데 UNGC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공동노력' 캠페인 전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7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 개최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호 협력 하에 두 기관은 올림픽 행사 준비, 운영 및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서 환경, 사회, 경제(ESG)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해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자 협력할 전망입니다.

■ 약 180개 기업,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페어플레이어 서약'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이하 FPC)은 독일 지멘스와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공동노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FPC 사업 마지막 해로,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EU, 중국 등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올해 '아세안 세미나'(1/26)와,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 반부패 서약 선포식'(3/6)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우리 기업이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국의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우수 사례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과 <아시아·중국편>을 연구 발간하여, 기업의 반부패 윤리경영 역량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약 180 여 개 기업 및 기관이 FPC 서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향하는 공동노력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 한·중·일 UNGC 네트워크 간 협력 강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는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제9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China-Japan-Korea UNGC Roundtable Conference)'를 3일 간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한·중·일 UNGC 협회 간 협력 도모와 각국 기업 및 학계, 학생 대표단 간 교류를 통한 CSR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변혁 - 동아시아의 역할(Transform Our World with the SDGs - The Role of East Asia)'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약 150명의 기업가 및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중·일 학생 대표단의 토론과 더불어, 학계 발표와 기업 세션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오갔으며,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주제로 한 세션과, 한·중·일 기업 패널, 각국 협회의 SDGs 관련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로컬 네트워크 세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올 해에는 초대 개최국인 한국에서 제10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미디어와 다양한 협력

2017년은 유독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미디어와의 협력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각 부문과의 시너지를 통해 협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업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UNGC 10대 원칙, 그리고 SDGs를 전파했습니다.

행사명	공동주최 / 후원
'2017 유엔체제학회(ACUNS) 30주년 기념 서울 총회 및 학술대회'	• 세계유엔체제학회, 한국유엔체제학회, 숙명여자대학교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구현'을 위한 MOU 체결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 BSI Group Korea/ 영국 외무부 Prosperity Fund
제 8 회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반부패와 신뢰기반의 사회' 세션	• 조선일보
CSR 아카데미	• 사회공헌정보센터, 대한상사중재원, MYSC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의 지경원 • EU: 주한 EU 대표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독일: 한독상공회의소 •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 영국: 주한영국대사관, 주한영국상공회의소 • 스웨덴: 주한스웨덴대사관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민간부문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맹,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 CSR 포럼, 한국사회학회, 중앙일보
[2017 CSR Workshop]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 5개년 종합시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

■ 2017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발간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에도 기업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를 자체 연구하는 한편, 유엔자료를 번역·발간했습니다. 2017년 발간된 주요 결실을 소개합니다.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은 SDGs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공유하고자 한국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총 28개의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참여하였으며, SDGs와 연계한 경영 비전, 핵심 전략, 정책 및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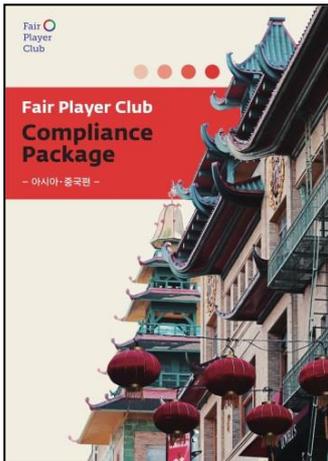
본 사례집은 UNGC 한국협회 회원, 정부,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에게 전달 되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SDGs 달성을 위한 행보를 점검하고, 전세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Fair Player Club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유럽편]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유럽편>은 유럽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각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유럽연합(EU) 외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반부패법의 핵심내용과 특징, 기업 위반/대응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이 해당 국가 진출 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수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유럽연합(EU)의 CSR 전략과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실어 EU CSR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Fair Player Club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중국의 반부패법 및 사례를 연구·조사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은 유럽편의 후속발간물입니다. 해당 발간물은 우리 기업이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시아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우수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패키지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국문본]



<제3자 리스크 관리(Managing Third Party Risk) 국문본>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제3자를 어떻게 선택,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기업 내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제3자 뇌물방지 체계 확립, 현황 공시, 문서화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정보관리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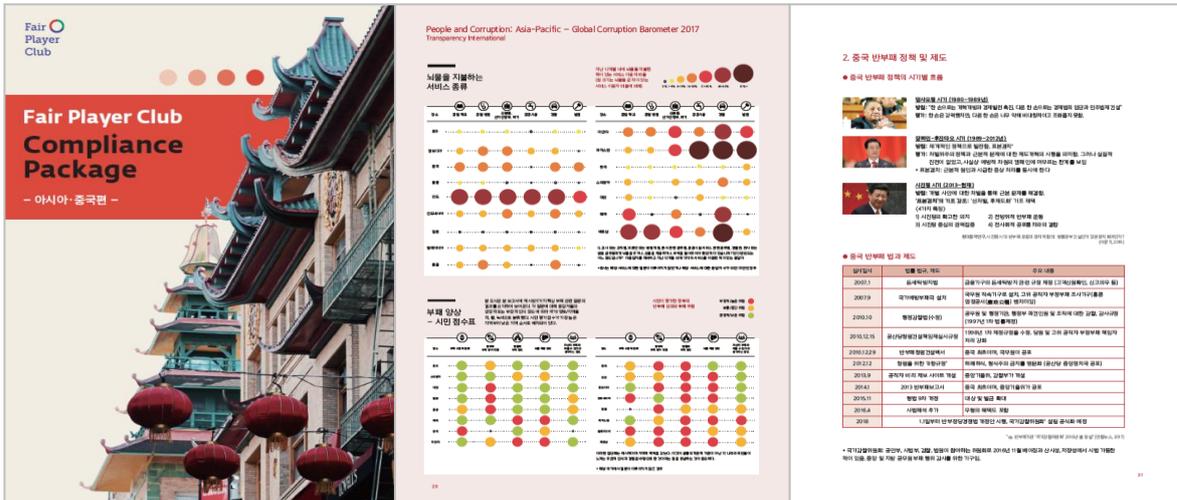
본 책자는 영국투명성기구가 집필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번역했으며, 주한영국대사관의 영국번영기금(UK Prosperity Fund)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영국투명성기구의 'The 2010 UK Bribery Act Adequate Procedures(2010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기초한 지침서입니다. 1) 통제 환경 조성, 2) 부패 리스크 평가, 3) 구체적인 정책 및 절차, 4) 뇌물방지 프로그램, 5) 사업파트너에 대한 실사 적용, 6) 모니터링 및 검토의 총 6분야에 걸쳐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주요 사업원칙, 다양한 사례 및 상세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기업이 자사 뇌물방지 환경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해 보고 리스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FPC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아시아·중국 편>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아시아 주요국의 반부패법 및 사례를 연구·조사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아시아·중국편>을 발간했습니다.

2017년 6월 발간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의 후속으로 발간된 동 발간물은 아시아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우수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아시아 진출 시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을 돕고자 합니다.

본 발간물은 ▲ 서론 ▲ 글로벌 반부패 동향 ▲ 아시아 반부패 동향 ▲ 중국 반부패 법과 제도 및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APEC 반부패 증진 노력, 2017-2018 G20 반부패 행동계획, 아시아 16개국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TI) 201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조사 결과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부패 환경 인식 제고 및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향후 아세안(ASEAN) 주요 회원국의 부패방지 법·정책 동향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서약 기업 및 세미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지침서>와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FPC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 <아시아·중국편> 등과 함께 기업 실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부패방지 법제를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02-749-2149, fpc@globalcompact.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 개최 결과 (12/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12월 20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국 진출 기업 실무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국 세미나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의 일환이나 우리 기업들의 중국 CSR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중국 사회책임경영(CSR)으로 주제를 넓혀 기획하였습니다.

동 세미나는 위하이옌(Yu HaiYan)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중국국제상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이자 한국중국상회 집행회장과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위하이옌 집행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해외 지사를 통해 현지 상황과 필요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선순환 구조로 상생하고 더 나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그 간 외교적 갈등으로 중국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비즈니스 재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국에 진출했거나 혹은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윤리경영’을 점검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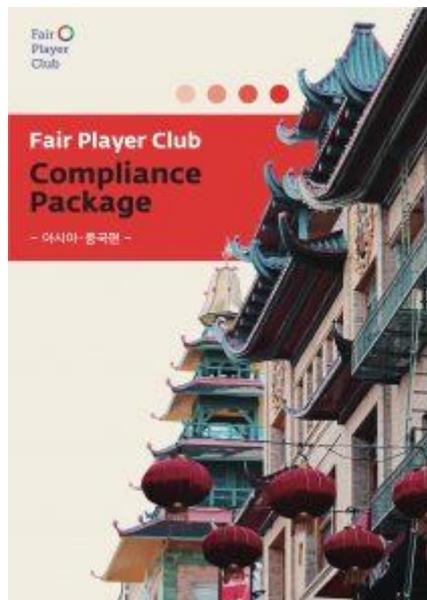
첫 발표를 맡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김인선 부교수는 중국의 CSR 법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CSR 현황 및 한국기업들의 더 나은 CSR 활동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자선법’의 제정배경과 핵심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에서 CSR 이행을 잘 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의 후이 쉬(Hui Xu) 파트너는 중국의 형법 및 2018년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국 반부패법·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늘 세미나는 24년만에 수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제 3자를 통한 뇌물 공여는 모두 형사 책임이 있고, 뇌물수수가 기업 임원이 주도한 것이라면 임원의 개인적인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업뇌물 행정처벌과 관련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준법경영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처벌 경감과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급행료, 거래 상대방의 범위, 최근 적발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UNGC 한국협회가 새롭게 연구·발간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지침서입니다. 이번 아시아·중국편은 아시아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대응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책임연구원은 아시아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소개와 더불어 아시아 반부패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FCPA 법 파일럿 프로그램의 의무화,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17-2018, 국제투명성기구(TI) 보고서 내의 아시아-태평양 부패인식조사 주요 결과,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등 주요 글로벌·아시아 반부패 동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부패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겪고 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며,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과 유엔반부패협약의 초반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협력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새로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의 경영자들을 위한 피난처 조항 유지, 상업 뇌물에 대한 기업 책임 명확화, 상업 뇌물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 증가 등에 대해 설명하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기업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우수기업 사례 발표에는 (주)LG 와 지멘스(주)에서 CSR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주)LG 김종필 차장은 (주)LG 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부패방지협약서 서명, 사이버 신문고 운영 등 정도경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LG 그룹사의 CSR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든 주요 회의에 앞서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백년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라는 창업 회장의 어록을 임직원들과 함께 상기하는 문화가 있고, 정도경영을 내재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주 지멘스(주) 준법지원인은 지멘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 되기까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과정과 강력한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준법경영을 잘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으나 오늘날 준법경영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사전승인제도가 있었으나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Tell US> 제도를 설명하며 내부 제보 시스템에 있어 익명성 보장을

가장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의 FPC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PC) 프로젝트 마지막 해인 올해는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EU, 중국 등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내년 초 아세안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에 서약 및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FP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페어플레이클럽 반부패 서약 안내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간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증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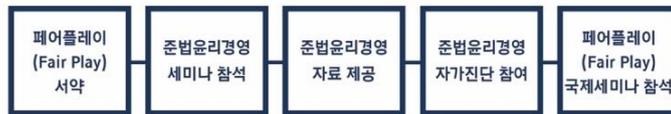
페어플레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의료산업 등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리스크 예방 및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2차년도는 7대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간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올해는 유럽·아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과 공급망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영국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간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료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가진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최: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주관: GCEF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페어플레이클럽 사무국 | www.fairplayerclub.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과 글 주임 연구원 / 소 완 연구원
 T. 02-749-2182/2149 | F. 02-749-2148 | E. fpc@globalcompact.kr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오지호 대리 / 김아름 연구원
 T. 02-714-5964 | F. 02-749-2148 | E. infogcef@gmail.com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본부 소식

1. [CEO 업데이트] 인권 존중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본 기사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그린비즈\(GreenBiz\)](#)에 기재한 글입니다.

지난 몇 년 간 여행을 해오며, 저는 2017 년이 진전 보다는 퇴보하는 해라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퇴보의 해”인 올 한해, 저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에 가해지는 위협들을 지켜보며 여러 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늘어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까지, 우리는 변화가 시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향상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난 달,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석했습니다. 인권이사회 내 미켈 바르셀로(Miquel Barcelo)의 정교한 천장화 밑에 앉아, 저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총장인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Husseini)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연간 캠페인의 시작을 발표하였을 때, 저는 올해가 진정으로 민간 부문이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인 2018 년 12 월 10 일이 되면,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의 70 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1948 년 12 월 10 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남긴 대대적인 파괴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권 유린 사건들 이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한 줄기의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화롭고 인간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500 개의 언어로 제공되는 본 선언은 역대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선언의 시초가 된 역사적 배경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선언은 지금까지도 처음 채택되었을 때만큼이나 중요하고, 보편적이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의 범위는 현대인의 삶 속에 모든 면과 연관되어 있으며, 선언에 내재된 인권의 정의는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토대인 [10 대 원칙](#)을 세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 대 원칙 중 네 개의 노동 원칙을 포함한 여섯 개의 원칙들은 인권을 다룹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의 의미를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기업들이 공급망과 경영활동 전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적절합니다. 올 9 월, 저는 저와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사무처장과의 대화에 혁신적인 선두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25 명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모두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던 건, 2030 의제 실행 2년 째인 지금,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날, 가장 부유한 1%는 전세계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은 하루 2 달러인 최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3 분의 1 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억 5 천명의 아이들이 아동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0 세부터 25 세까지의 전 세계 청년들 18 억명 중 30%는 교육, 훈련, 고용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 균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5.5](#) 를 이행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성 평등은 단순히 옳은 일을 넘어,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2015 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에 28조 달러만큼 기여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표를 고양시킬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창립 후 지난 17년 간 책임감 있는 기업들의 더욱 더 성장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목도해 왔습니다. 인권 원칙의 도입부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권 존중이 세계 경제에서의 경영 활동의 일부임을 점차 더 많은 기업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권 딜레마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UNGC는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등을 다루는 원칙들을 채택함으로써, 기업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 진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고무적인 것은, 2017 프로그래스 보고서(2017 Progress Report)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2,000개의 기업 중 90% 이상이 기업 내 인권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15%만이 자사 인권 관행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대규모의 영향 평가가 없다면, 기업 지속가능성 원칙 기반 접근방식의 완전한 잠재력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역사 전반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평등의 심화와 폭력, 그리고 차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권 선언이 처음 작성되었던 시기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현 시기를 기점으로 원칙의 힘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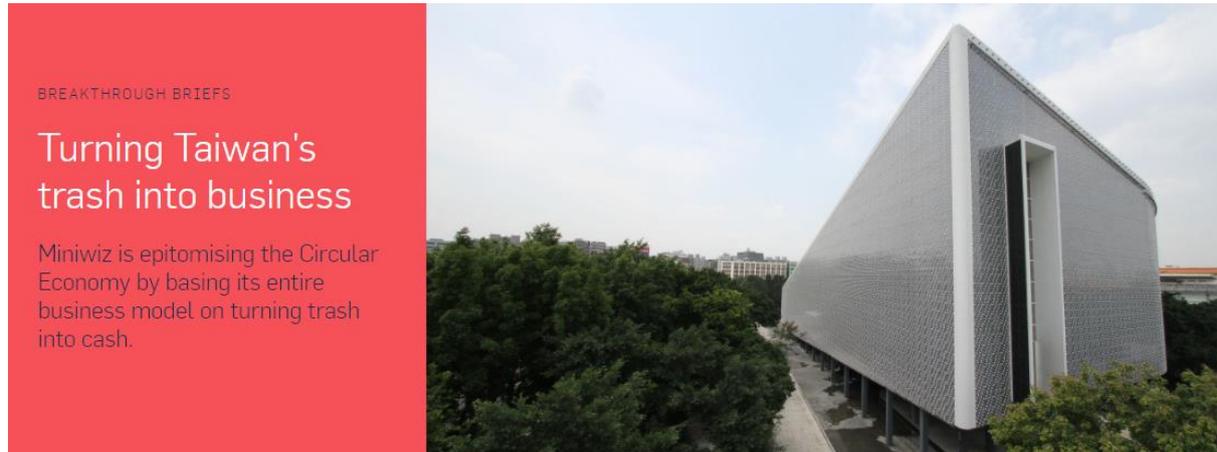
인권 보호는 최종적인 책임은 각 정부에 있지만, 기업들이 좌시하기에 인간 존엄성의 대의명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어렵게 얻은 인권분야의 발전이 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다음 일년 간의 여정을 저와,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함께 해주십시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 UNGC의 [인권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기업을 위한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기업과 인권 자료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를 방문해보세요

-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읽어보세요
-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 이행을 기업이 격려하는 방법](#)
- [당신의 기업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
- UNHR의 [세계 인권 선언의 7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간 캠페인](#)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2.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사례 - 미니위즈 (Miniwiz)



- 프로젝트 리더: 아서 후양(Arthur Huang) & 자르비스 리우(Jarvis Liu), 미니위즈(Miniwiz) 공동 창립자
- 지역: 대만 타이페이

플라스틱 병으로 지은 건물, 도시에서 수집한 유리. 쓰레기를 줄이는 폴리브릭(Polli-Brick)과 에코모프(Eco-Morph). 업사이클링으로 탄생한 영화관들과 재활용된 비행기 날개. 이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비록 쓰레기로 만든 것들이지만요!



대만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회사 [미니위즈](#)는 지난 10년간 오래된 물건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사업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상징적인 정부청사와 명품 브랜드샵의 인테리어, 산업규모의 재활용, 주요 마케팅 장치부터 고성능 안경과 가구까지, 이 모든 것들은 미니위즈의 창립자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그리고 자칭 'do-er(행동가)'인 [아서 후양](#)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서 후양 창립자는 '최소화가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후양은 2005년, 그의 첫 획기적 지속가능 제품 라인(태양열과 풍력을 통한 충전기인 하이미니)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에서 미니위즈를 위한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는 풍부하고, 고급 플라스틱, 금속 및 섬유를 제공하는 매우 가치 높은 자원입니다. 매년 쓰레기의 양이 70%씩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으로써의 쓰레기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후양은 자사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통해 재활용 100% 자재를 만들어 인간이 만든 오염물, 특히 플라스틱과 전자, 음식, 농업, 포장재와 자동차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자원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미니위즈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만한 DIY(Do-it-yourself) 제품들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니위즈는 쌀껍질로 만든 아이폰 커버나, 마더보드 포장재로 만든 와인 병 캐리어, CD 를 재활용한 선글라스와 같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용해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건물들의 탄소발자국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미니위즈의 고급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페트(PET)로 만들어진 외벽 시스템부터, 재활용된 고분자와 농업 폐기물로부터 만들어진 합성물, 페트와 쌀껍질로부터 나오는 이산화 규소를 통해 만들어진 직물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재활용된 자재를 이용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장까지 지었습니다.](#)



그 중 가장 미래적이며 시선을 끄는 프로젝트는 9 층 높이의 [에코아크 파빌리온\(EcoARK Pavilion\)](#)입니다. 이 건축물은 2010 년 타이페이 국제 식물 박람회에서 공개된 지속가능한 엔지니어링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150 만 개의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진 에코아크 파빌리온은 서로 연결되어있는 벌집 모양의 [폴리브릭\(POLLI-Brick\)](#) 을 활용해 화학 접착제 사용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나이키,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코카콜라(Coca-Cola)와 스타우드 호텔(Starwood hotels) 등이 이미 미니위즈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성공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설득이 필요했지만, 진보적인 브랜드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행 가능한 제조 솔루션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앙의 가장 대담한 도전은 쓰레기를 날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니위즈의 항공기 실험 프로젝트인 [에코파이터\(EcoFighter\)](#)는 고급 나노기술과 기계 공학을 접목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쓰레기를 항공기의 날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니위즈가 해온 사업들은 주로 대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유사한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향후 모든 새 자재들을 쓰레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서 후앙 창립자는 “우리는 쓰레기로 재활용한 자재들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새 자재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여러 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쓰레기는 그 어떤 물건으로도 재탄생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 본 콘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볼란스(Volans), PA 컨설팅, DO 스쿨(The DO School), 싱귤래리티 대학교(Singularity University), 이노베이션 아트(Innovation Arts)가 함께 참여한 Project Breakthrough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사진: Miniwiz (www.miniwiz.com)

SDGs 소식

1. [Goal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Goal 4 & 8 청년정책

• 청년과 함께 서울형 청년생태계 조성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2017 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첫해인 지난해(891 억 원)보다 203% 증가한 1,805 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 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 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 서울시 청년지원 2 배로 확대

설자리 청년실업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자존감 하락 및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안전망으로써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17 년 중앙정부의 청년수당사업 '수용'으로 더욱 힘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은 종합적 청년정책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청년활동 보조금 지원(청년수당):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매월 50만원 × 6개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 관계회복 등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1. 일자리: 서울시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청년 뉴딜 일자리'로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기 실업자 우선대상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은 지난 한 해 총 77 개, 2,000 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청년중심의 사업과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등 체계적인 경력형성 지원 시스템 구축과 민간일자리 연계강화를 통하여 총 290 여 개 5,500 여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경력 형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16년 77개 사업 → '17년 290개 사업)
-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및 고용 창출
-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맞춤형 우수 기능인력 양성

2. 살자리: 낡은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낡은 비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공간이 반영된 청년주거공간 '공공고시원', '공공기숙사' 형태의 세어하우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들이 처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주거문화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놀자리: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연계를 통해 청년들 스스로 청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종합활동공간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청년단체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공간 조성 및 공간문화 형성 활동, 국제교류, 제작 활동, 지역 연계 활동 등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도모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공간, 일자리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한 청년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17 년 현재 운영중인 무중력지대는 2 개소(G밸리, 대방동)에서 6 개소로 확대조성(성북, 도봉, 서대문, 양천)하고 지역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공간인 '청년교류공간'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청'은 54 개 단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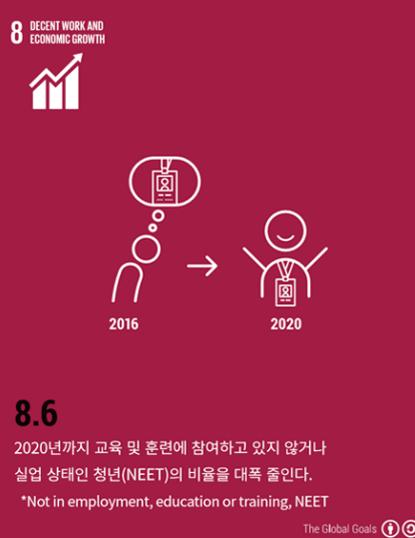


•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청년의회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하나로, 2015 년 실험적인 도입이 성과를 드러낸 가운데 '16 년에 이어 세 번째 청년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9~39 세 청년을 참여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청년의회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시의회 청년 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게 되어 민(民)·관(官)·정(政) 협치가 더욱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형 깎이어 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주거권 보장 TF 구성 제안 등 10 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실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p>4 QUALITY EDUCATION</p> <p>2016 2030</p> <p>4.4</p> <p>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대폭 늘린다.</p> <p>The Global Goals 1 2</p>	<p>“SDGs 세부목표 4.4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p> <p>유네스코(UNESCO)의 ‘1962 전문 및 직업 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을 처음 집중 조명하였고, ‘2001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개정판’에서는 기술 및 직업 교육이 고용과 취업기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교육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p> <p>1960-70년대 초 개도국을 지원하는 양자, 다자 협력의 핵심 요소였던 기술 발전(Skills Development)과 기존의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을 더한 TVSD는 1996 정책강령과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0년 EFA 목표 3번에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활능력과 학습 촉진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p>
 <p>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p> <p>2016 2020</p> <p>8.6</p> <p>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NEET)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p> <p>*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p> <p>The Global Goals 1 2</p>	<p>“SDGs 세부목표 8.6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 비율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p> <p>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15세에서 24세 인구를 칭하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라는 단어는 영국 사회배제청(Social Exclusion Unit)이 199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ILO 선언에서는 세계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는다는 목표 하에 1일 최대 노동시간, 실업 예방, 최저 임금 제공, 아동, 청년, 여성의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p> <p>MDGs에서도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1.B의 달성을 측정하는 통계 지표로 15세-24세 청년의 실업률이 활용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ILO에서는 2005년 “양질의 일자리로 향하는 ILO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이 행동계획의 일부로 청년 고용, 불안정고용, 실업에 관한 보고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NEET 통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p>

2. [SDGs 시장 기회] 콤팩트하고(Compact) 친환경적이며(Green), 상호연결된(Connected) 도시 개발



콤팩트하고(Compact) 친환경적이며(Green), 상호연결된(Connected) 도시 개발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¹

도시로 이사를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시골 거주민들은 대체로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도시로 이주합니다. 이런 '신흥도시'는 대도시들보다는 인구과다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신흥도시도 점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과 투자를 통해 이 도시들이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자본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연결성이 뛰어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지금부터 2030년까지 인프라 투자 자본비용의 6%(전세계적으로 3조 달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너지 절약과 높은 생산성, 의료비 감소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MARKET KEY NUMBERS



이 시장기회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인프라 자본금액



현재 도시화 속도대로라면 세계 도시들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650만 명의 인구가 추가될 것입니다.



교통 체증의 비용은 GDP의 1.5%에서 4.5%를 차지합니다.

¹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콤팩트시티란 도시 내부 고밀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도시외곽 및 녹지지역의 개발 억제,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문화재의 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도시문제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서 콤팩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더 콤팩트하고 동시에 더 친환경적인 계획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장거리 이동은 효율적이며 잘 연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기 오염을 줄이며, 사회적으로 더 결합된 지역들을 만들고, 에너지와 시간 절약을 통해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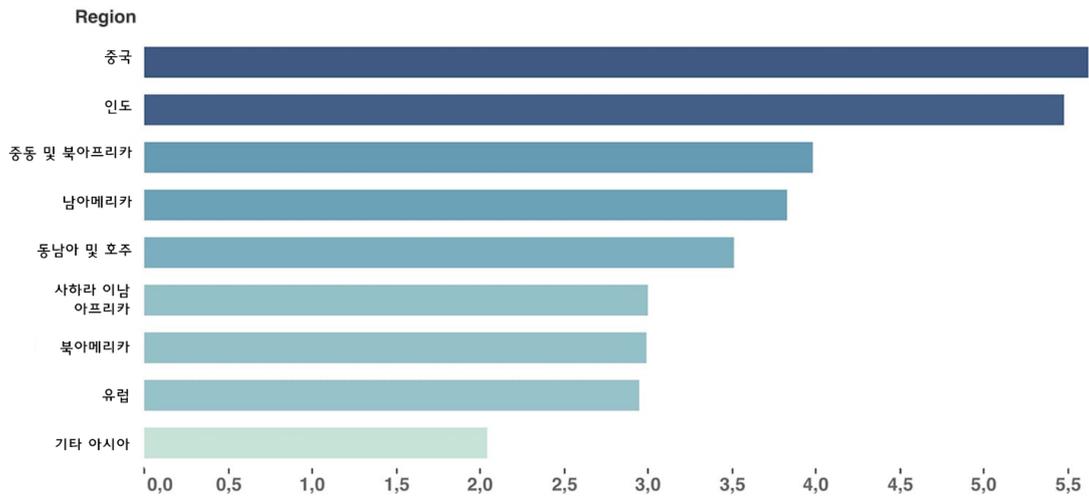


개인 투자자들도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와 주차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공원과 녹지들은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도시의 부동산 가격과 생물 다양성의 긍정적 영향, 비만률 감소 등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시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압축도시의 중심지들은 더 많은 인재들과 자본을 끌어들이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민관 협력은 이러한 접근방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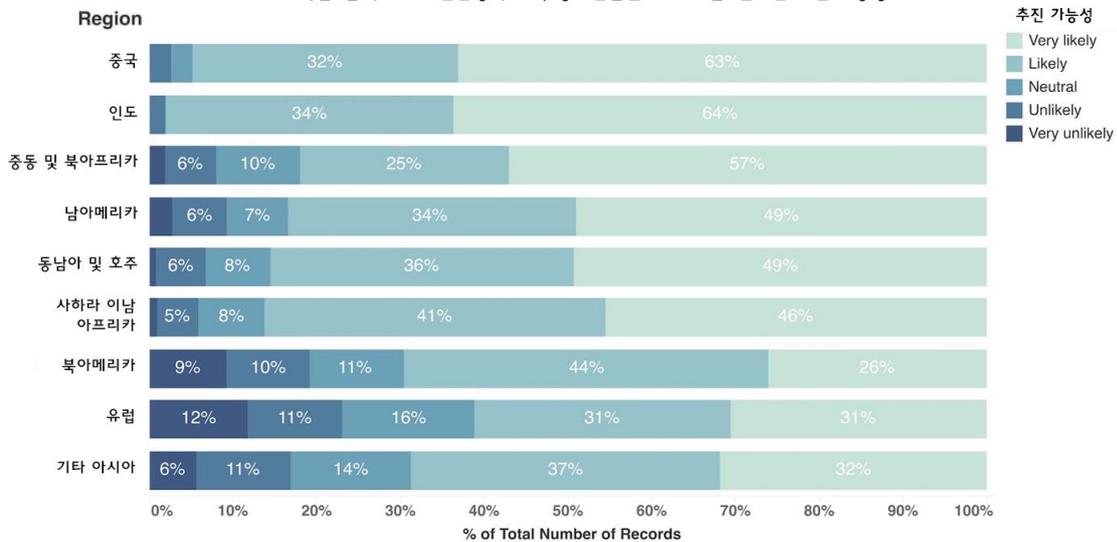
인도와 중국의 응답자들은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를 구축하는 시장 기회'가 우리 사회에 이로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거대한 도시화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 시장 기회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지역별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 개발' 신사업 추진 능력



이 시장기회는 저소득·중간소득 국가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장기회가 기업에 줄 혜택과 신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정부 기관, 그리고 기타 기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 개발' 신사업 추진 가능성



해당 조사 결과는 [2015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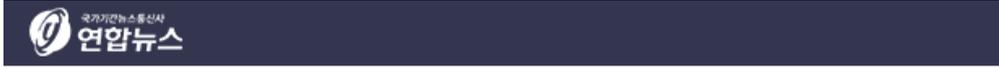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 개발’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본 콘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인니아(Sustainia), DNV GL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회원사 뉴스

1. 손태승 우리은행장 취임..."조직 화합이 최우선 과제"



손태승 우리은행장 취임..."조직 화합이 최우선 과제"(종합)

기사입력 2017/12/22 16:00 송고

"혁신으로 신뢰 회복...종합금융그룹 완성 목표"

(서울=연합뉴스) 박익래 기자 = 우리은행의 손태승 신임 행장이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취임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행장의 대표이사 행장 선임 의안을 결의했다.

손 행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3년이다.

이어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 행장은 "조직의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건전한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인사 혁신과 영업문화 혁신을 통해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손 행장은 3대 경영방침으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은행', '종합 금융그룹 완성'을 제시했다.

- 우리은행 손태승 신임 행장 취임.
- 3대 경영방침으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은행 △종합금융그룹 완성 제시.
- 손 행장, "금융을 선도하는 수익성과 성장성, 혁신성뿐 아니라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
- [원문보기 \(연합뉴스\)](#)

2. ICT 로 멧돼지 퇴치...평창 오지마을이 세계 첫 '5G 마을'로

스포츠경향

ICT로 멧돼지 퇴치...평창 오지마을이 세계 첫 '5G 마을'로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입력 : 2017.12.21 06:00:01 | 수정 : 2017.12.21 06:01:00

주민 208명이 사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 의야지마을이 '세계 최초의 5G 빌리지'로 변신했다. 내년 2월 평창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5G 네트워크의 빠른 속도와 함께 한국의 첨단 ICT가 산골 마을을 바꾸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마을이 '세계 최초의 5G 빌리지'로 변신했다. 마을 중심에 조성된 '꽃밭 양지카페' 2층에는 360도 영상으로 실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미래형 쇼핑 플랫폼 '5G AR 마켓이 들어섰다. KT

- KT, 지역사회 문제를 ICT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기가 스토리 추진. 의야지마을은 기가 스토리 일곱번째 마을로, '세계 첫 5G 마을'.
- 카메라·레이더·퇴치기로 구성된 '유해동물 퇴치 솔루션' 개발, 마을 2곳에 설치. 추후 다른 농촌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
- 황창규 KT 회장, "주민들과 힘을 합쳐 내년 2월 평창을 찾은 세계인들이 5G의 놀라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올림픽 이후에도 KT가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

- [원문보기 \(스포츠경향\)](#)

CSR 뉴스

1. [더 나은 미래] 얼어붙은 5대 그룹 CSR, 내년 해빙기 맞는다

< 뉴스



[더 나은 미래] 얼어붙은 5대 그룹 CSR, 내년 해빙기 맞는다

정유진 더 나은미래 기자 | 2017/12/26 03:03

가-

가+

최근 대기업 지속가능경영팀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회의가 열린다. 새 정부 어젠다에 맞춰 전략기획팀, 사회공헌팀, 환경전략팀, 사회공헌팀, CSR·CSV팀, IR팀 등 부서별 협업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하는 등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얼어붙었던 5대 그룹의 CSR이 2018년을 기점으로 시동이 걸릴 것"이라 전망한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어젠다가 대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조선일보DB

-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어젠다가 대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 대기업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CSR 부서 강화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여와 관심 증가.
- 5대 그룹의 기부금 집행 절차는 더 까다로워 질 예정.
- 김종대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커지는 만큼, 내년부터 CSR을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
- [원문보기 \(조선일보\)](#)

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임금 차별 땀 '징벌적 손해'

경향신문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임금 차별 땀 '징벌적 손해'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입력 : 2017.12.26 22:37:00 | 수정 : 2017.12.26 22:40:24

- 정부, 여성 일자리 5년 로드맵
- 유리천장·독박육아 해소 초점
- 지방공기업에도 고용개선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문 대통령 왼쪽) 등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인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 단절 예방 △여성의 재취업 촉진의 세 분야로 구성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정책으로 유리천장·독박육아 해소에 초점.
- [원문보기 \(조선에듀\)](#)

3. 계열분리 친족기업, 3년간 원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내야한다



계열분리 친족기업, 3년간 원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내야한다

기사입력 2017/12/20 09:31 송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회피용으로 악용 지적 따른 조치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원독립경영은 보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은 3년간 분리 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소유·지배한 회사가 총수의 지배력과 관련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이면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 경영이 보장된다.



공정위
[연합뉴스TV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개정안, 친족분리 규율 강화 및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요건 규정
- 이번 개정은 계열분리가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 공정위 관계자, "순수 독립 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으로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관행도 전문가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원문보기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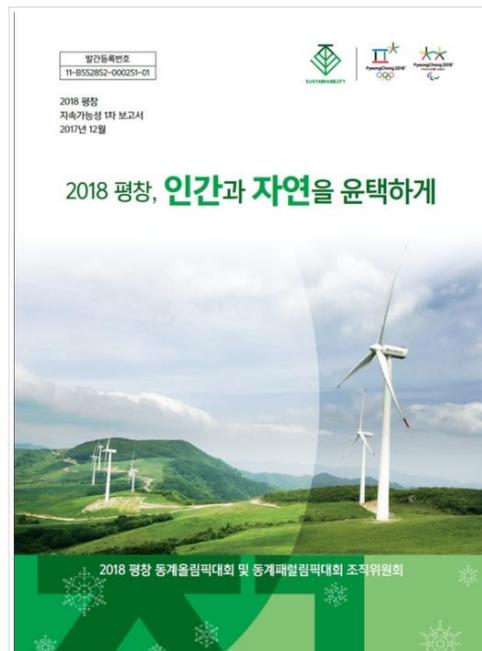
4. 평창 조직위, 지속가능성 1차보고서 발간



스포츠 > 종목일반

평창 조직위, 지속가능성 1차보고서 발간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7-12-26 15:20 송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26일 2018 평창 지속가능성 1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평창 조직위 제공) © News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대회 준비과정에서의 환경, 경제, 사회 분야 5대 주제 17개 지속가능성 실천 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2018 평창 지속가능성 1차보고서' 발간.
- 보고서는 2018 평창대회의 지속가능성 5대 주제인 △저탄소 그린 올림픽 △자연의 보전과 전승 △건강하고 윤택한 삶 △성숙한 문화시민의 공지 △세계로 도약하는 평창을 위한 17개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이희범 조직위원장, "이번 보고서를 통해 평창 지속가능성의 실천노력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속가능성 발전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원문보기 \(뉴스 1\)](#)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 월 16 일부터 1 월 2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환경공단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16 일부터 1 월 2 일까지 11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주)부영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 SK 이노베이션(주)
-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주)태광실업
- 한국환경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네이버 주식회사
- 베타니아복지재단
- 기업은행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2017 년 연회비 미납 회원

한국남부발전, 포스코, 핑거, 한국청년창업취업연구소, 킨텍스, (주)제씨콤, 한국관광여행개발원,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나노기술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예탁결제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극지연구소, 한국마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YSC, 강동구도시관리공단,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오한진연구소, 한국관광공사, KT sat, (주)나인, 네이버, NH투자증권(주),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일성건설주식회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